

白鶴振傳

小古
説代

傳 振 鶴 白



98

1917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Inches 1 2 3 4 5 6 7 8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백학진전 白鶴振傳

登錄番	3197
類番	
書番	
圖番	

학
 각설티송성화년간에 하동씨의 호 사람이잇스니 성은백(白)이오 명은학진
 (鶴振)이니 티々공후작록(公候爵祿)이일국의 으뜸일너니 청운(靑雲)의 뜻시
 업셔 소년(少年)의 벼살을하직하고 々향(故鄉)에도라와 공명(孔明)의본
 을바다 공산중(空山中)에 밭갈(耕田)기와 즈릉락(子陵樂)을 좃츠청계변
 (淸溪邊)에 고기낙기를 일을숨어 세상즈미(世上滋味)를 예다가붓쳐쓰니
 불환삼공(不換三公)이아닌가 봄(春)이되면 영춘산(迎春山)의을나만화방창
 (萬和芳暢)하고 여름(夏)이되면 망하동거(忘夏動車)저가셔 피서향림(避
 暑向林)하고 가을(秋)이되면 비추봉(悲秋峯)의을나 정거좌이풍림만(停
 車坐愛楓林晚)하고 겨울(冬)이되면 인동강거(因冬降車)저가셔 독좌한강
 설(獨坐寒江雪)하니천디만물스옹(天地萬物司翁)은 이사람하나뿐이로다 이
 1 갖치 세월(如此歲月)을 뜻업시보너니 무슨걱정이잇스며 무엇시부족하리

학
진
전

오마는 한갓흔하는바는 년장육십(年將六十)의 슬하(膝下)에 일점혈육(一點血肉)이 업서 주야한탄(晝夜恨嘆)하더니 호로는자연심신(自然心神)이산
 란하여 죽장(竹杖)을집고 영춘산(迎春山)의을느가니 빙화만발하여 만화
 방창흔디 각색춘조(各色春鳥)는 흥을거워넘노는디 봉々(峯々)의 안리지
 옥하고 골々(谷々)이슈성(水聲)은잔々(潺々)흔디 한곳을바라보니 예음든
 초당이 은々이되이느중에 선악(仙樂)소리 속객(俗客)의 정신을놀리는지
 라 망혜완보(芒鞋緩步)로 츠저가니 선녀한쌍이나와 마저드러가 중계(中
 階)의세우고 을느가상좌(上座)의 안진선랑계엿조오되 흥동스는 빙학진
 란군(白鶴振郎君)을 모셔왔나이다하니 당상(堂上)의셔 무슨글흔귀를 너
 여주거늘 바다보니 전세미진연(前世未盡緣)을 금쇼은하동(今宵銀河通)이
 라하엿거날 학진이그글을보고 뜻을느셰이아지못하여 주저(踟躇)하더니 락
 다자옥하며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산천을저치는듯하더니 이윽하여 운무
 (雲霧)버셔지며 두줄무지키(兩行霓)서더니 락상으로 금덩하느히나려오는
 디 선녀좌우의응위하고 초당의전좌하더니 한자로 흥션을너여주고 금갑

학
진
전

한별을주며 일기옥동녀조(一個玉童女子)를명하여 빙학진의게보너여 부여
 지녀(付汝之女)로보라 일나왈빙낭군은 전성스를 생각지못하시는잇가 낭
 군은 천상의견우성(牽牛星)츠지흔선관이요 첩(妾)은 천상직녀성(織女星)
 츠지흔선녀로서 상제게득죄(得罪)하여 인간(人間)의 너치시리 낭군은청
 주씨의스는 김스일의집의환성하시고 첩은쇼주씨의진쳐스의 딸이되여 성
 레하여만느지철년의 녀식하나를두고 낭군이경성의을느가 과거(科擧)를보
 아 금방(金榜)의참예하미 천조보시고스랑하스것히두고 떠나지못하게하시
 다니 천만의외에 북흉노(北凶奴)번성하여 중국을침노(侵虜)하미 천조근
 심하여왈 짐(朕)이 박덕하여 북적이지경을범하나 니라져 나라를위하여
 출전(出戰)하리요 하신디 만조빅관이하느도 즈원하느지업느지라 잇셔승
 상장무학이 천조게주왈 방금(方今)적세위급하옵고 조정(朝廷)에 맛당호
 신하업스나 금번의과거흔 김한림을명하여 방적(防賊)하시게하옵소서하디

천지마지못하여 낭군을명호스 방적하라하시니 낭군이죽일발행호실시 부
 모와쳐즈를싱각하시고 즈연심스조치못하고 만리전장의가 식음(食飮)이편
 치못하여 즈연병이느미 청춘고혼(青春故魂)이 만리전장의 무주고혼(無
 主故魂)되는거슬 생각하여 병이점々김피 다시고국의 도라오지못하니 원
 혼(冤魂)이되어 신병을모라 북적을쇼멸(消滅)하고 청년의떠다니며 주야
 호음하니 이원(哀冤)호곡성이 구천(九天)에스모쳐 옥황상제(玉皇上帝)게
 읊서 불상이여기스 낭군으로 탄생인간(誕生人間)하시게하시 하동사에잇
 는 뵈승상게지시하시고 첩의몸에는 천상으로 불너올녘스나 우리만늘피
 약은 숨빅년을정호신고로 진직셔로 만는지못하여스나 지금은 한늘스이
 머지안이호즉 슬하(膝下)의 철육업는거슬 과도이셔라마음시고 밧비도라
 가공을제운후 다서만나 보을이다하시니 운무(雲霧)다시 즈옥하며 무지
 키셔더니 공중(空中)으로 선악(仙樂)소리느며 옥교와 금덩(玉轡金轡)이
 간곳지업고 운무츄々버셔지며 일월이명낭호거늘 다시살피보니 초당도업

학 진 전

고 다만바위아리셨는지라 삶인가싱각하시니쌘도아니요 싱각하시 허망하기
 측량업는지라 짐으로도라올가하여 죽장(竹杖)을잡고 스면을살피보니 만
 학천봉(萬壑千峯)의 뵈설이즈졌거늘 다시싱각하시 니가올나올셔는 방춘
 화시(芳春花時)의 뵈화만발호였더니 엇지호로가못되어 뵈설이즈졌스나 그
 일도또호쌘갓도다하시며 흥션을다시보니 글즈를써시되 합덕션이라 완연호
 고 금갑을보니 월계갑이라식였더라 두가지를 몸에간수호고 짐으로올셔
 천산에조비절(千山鳥飛絕)호고 만경의인적멸(萬逕人跡滅)호되 숙조(宿鳥)
 는 투림(投林)호니 흥익마음밭부도다 황혼(黃昏)의 월석(月色)은 뜨고
 짐을츄져도라오니 전의잇는집도업고 동너스람츄져 말을무러보니 호는도
 아는스람이업고 쇼문익종하쳐티(笑問客從何處來)오하시며 우셔왈 뵈학진은
 옛날스람이라 이뵈여턴전의 이마을셔스더니 우연이영춘산에 구경갓다가
 도라오지안코 그부인쇼씨만 집을적하고있더니 별제호미 노속비(奴屬輩)
 가 안장호였다 호말을드렛거너와 손임은 어티게시며 뵈시관티 옛날스

학 진 전

름을 초저왔는잇가하거늘 **빅학**진이싱각하니 아마도살인듯하나 지닌일을
 싱각하면 영춘산갓다운일이 분명흔지라 **알**슈업논일이로다하며 **쥬**져하다
 가 싱각하니 갈곳이전혀업서 영춘산으로도도 올는가 초라리쥬려쥬는거
 시을로다하고 영춘산으로 올는가니 다만바위만셔셔 반기는데하더라 모
 진목숨이 초마즈결치못하여 바위를의지하고 탄식하더니 **이**유고 **일**출동
 령(月出東嶺)하여 **만**산수음(滿山樹陰)을 그림으로빗치는듯 무심두견(無
 心杜鵑)시는 월하불여귀(月下不如歸)를 지촉흔들 천디무가객(天地無家客)
이어디로가리요 탄식하고 안젼더니 **공**중의셔 무슨소리나거늘 들어보니
엇더흔노인이 **빅**학을라고몸의 청포를입고 **공**중에서외어왈 **빅**학진은 무
 손걱정을 그디지하느냐 **치**우면갑옷입고 **빅**곱푸면홍션을 **붓**치라하는소리
 귀에완연흔지라 **부**처를 **늑**여두어번부치니 **어**디서절티미인이 **금**반의옥잔
 을 **눅**코 **선**쥬(仙酒)와**선**과(仙果)를 **가**득이노와 **드**리거늘 **그**음식을먹고
느니 **정**신(精神)이 **쇄**락하며 **전**후의지닌일과 **늑**두의오논일을 **가**이알너
라 **흔**즈말노란식왈(嘆息曰)엿적에초부(樵父)하느이 **신**선의바둑두는 **거**슬
보고도라올제 **짐**헛든듯기조로 **씩**고**짐**의도라오미 **손**즈가났다하더니 **그**말
이을로다 **나**는어제 **이**곳에왔다가 **짐**을차즈가니**이**빅여년되엿다하니 **신**선
의쥬화요 **상**제(上帝)의 **시**기심인가하며 **선**랑의말슴과 **노**인말슴을싱각하
여 **할**슈업셔 **천**디로금침(衾枕)을습고 **홀**노누엇더니 **비**몽스몽(非夢似夢)
간에 **빅**발노인이 **청**여장(靑藜杖)을집고 **갈**건야복(葛巾野服)으로 **흑**티(黑
 帶)를써고 **완**연이압페와셔 **머**물너왈 **그**디는무슨즈음을 **이**디지즈는요 **지**
금나라의 **큰**근심이잇셔 **종**묘스직이위티(危殆)하미 **쥬**셔에잇스니 **지**금**빛**
비황마산만슈동(黃馬山萬壽洞)옥천티스(玉川大師)를 **초**져가면 **즈**연귀인을
맛나 **반**가온쇼식도듯고 **구**제도하여티공(大功)을제우고 **일**흥을쥬빅(竹帛)
에올녀 **천**쥬(千秋)의유전(遺傳)홀거시니 **어**셔**빛**미가라하거늘 **놀**나눈을들
어보니 **노**인은간티업고 **다**만**월**식은 **잠**담하고 **만**학**천**봉(萬壑千峯)의 **빅**
설이가득흔티 **밤**은**임**의오경(五更)이라 **황**마산을싱각(生覺)하니 **촉**나라금

름을 초저왔는잇가하거늘 **빅학**진이싱각하니 아마도살인듯하나 지닌일을
 싱각하면 영춘산갓다운일이 분명흔지라 **알**슈업논일이로다하며 **쥬**져하다
 가 싱각하니 갈곳이전혀업서 영춘산으로도도 올는가 초라리쥬려쥬는거
 시을로다하고 영춘산으로 올는가니 다만바위만셔셔 반기는데하더라 모
 진목숨이 초마즈결치못하여 바위를의지하고 탄식하더니 **이**유고 **일**출동
 령(月出東嶺)하여 **만**산수음(滿山樹陰)을 그림으로빗치는듯 무심두견(無
 心杜鵑)시는 월하불여귀(月下不如歸)를 지촉흔들 천디무가객(天地無家客)
이어디로가리요 탄식하고 안젼더니 **공**중의셔 무슨소리나거늘 들어보니
엇더흔노인이 **빅**학을라고몸의 청포를입고 **공**중에서외어왈 **빅**학진은 무
 손걱정을 그디지하느냐 **치**우면갑옷입고 **빅**곱푸면홍션을 **붓**치라하는소리
 귀에완연흔지라 **부**처를 **늑**여두어번부치니 **어**디서절티미인이 **금**반의옥잔
 을 **눅**코 **선**쥬(仙酒)와**선**과(仙果)를 **가**득이노와 **드**리거늘 **그**음식을먹고
느니 **정**신(精神)이 **쇄**락하며 **전**후의지닌일과 **늑**두의오논일을 **가**이알너
라 **흔**즈말노란식왈(嘆息曰)엿적에초부(樵父)하느이 **신**선의바둑두는 **거**슬
보고도라올제 **짐**헛든듯기조로 **씩**고**짐**의도라오미 **손**즈가났다하더니 **그**말
이을로다 **나**는어제 **이**곳에왔다가 **짐**을차즈가니**이**빅여년되엿다하니 **신**선
의쥬화요 **상**제(上帝)의 **시**기심인가하며 **선**랑의말슴과 **노**인말슴을싱각하
여 **할**슈업셔 **천**디로금침(衾枕)을습고 **홀**노누엇더니 **비**몽스몽(非夢似夢)
간에 **빅**발노인이 **청**여장(靑藜杖)을집고 **갈**건야복(葛巾野服)으로 **흑**티(黑
 帶)를써고 **완**연이압페와셔 **머**물너왈 **그**디는무슨즈음을 **이**디지즈는요 **지**
금나라의 **큰**근심이잇셔 **종**묘스직이위티(危殆)하미 **쥬**셔에잇스니 **지**금**빛**
비황마산만슈동(黃馬山萬壽洞)옥천티스(玉川大師)를 **초**져가면 **즈**연귀인을
맛나 **반**가온쇼식도듯고 **구**제도하여티공(大功)을제우고 **일**흥을쥬빅(竹帛)
에올녀 **천**쥬(千秋)의유전(遺傳)홀거시니 **어**셔**빛**미가라하거늘 **놀**나눈을들
어보니 **노**인은간티업고 **다**만**월**식은 **잠**담하고 **만**학**천**봉(萬壑千峯)의 **빅**
설이가득흔티 **밤**은**임**의오경(五更)이라 **황**마산을싱각(生覺)하니 **촉**나라금

학 진 전

각철산(金角鐵山)과 삼협(森陝) 오곡(午谷)을 지는가 아니라 헤아리니 숨만
 칠천여리라 몸의늘기업스니 엇지가기가 용이하리요하며 출세성공하랴
 들 조고마흔지조업스니 무슨공을세우리요하고 도로누엇더니 홀연공중(忽
 然空中)에서 외여알뵈학진은 엇지던디(天地)를모로고 봉닉산뵈춘군선성
 (蓬萊山白春君先生)의현몽(見夢)을 하망(何妄)이아난다 네몸의가진두가지
 보비는 천하에업는보비라 붓치는붓치면 네마음먹는되로 되는거시요 갑
 옷은 창검이범치못하고 슈화를피하는거시니 엇지극흔보비안이리요 염려
 말고 밧비가라하며 무슨집핑막디를쥬며왈 이집핑이일흔은 구룡장(九龍
 杖)이라 이집핑이를라고 합덕선형홀곳즐 가르치면서 구룡장 머리를세
 번치면 변화무궁(變化無窮)하니 밧비국가(國家) 근심을덜고 선성(先生)
 과월계를 만느게하랴하며 간곳업는지라 놀나보니 무슨막디이쓰되 형용
 (形容)이 괴이(怪異)흔거시잇거늘 들어보니 머리에구룡장이라 삭엿스며

구두일미(九頭一尾)라 평형에보든바 처음이라 그제야천디신령이 도으심
 인가하여 구룡장을라고 합덕선(合德扇)을 들어세번치니 홀연천디(忽然
 天地) 조옥하며 스면의 운무조옥하더니 구룡장이화하여 공중을 행하며

학 진 전

숨만칠천여리(三萬七千餘里)를 평디에 득달하노지라 만수동에 들어가니
 만학천봉은 스면의 철성(鐵城)갓치들너잇고 구곡청계(九谷淸溪)는 도화
 류슈(桃花流水)되여 흘러스니 진시선경(眞是仙境)이로다하며 초즈들이가
 니 석경(石徑)조분길로 한로승(老僧)이나려오며 무슨노리를 할거늘 조
 세(仔細)이 드러보니 구룡장이 룡마(龍馬)되고 합덕선이 합덕검(合德
 劍) 되엿세라 티명일월(大明日月)다시말거 국티민안(國泰民安)하려니와 영
 춘산초당상(迎春山草堂上)의 선녀월계(仙女月桂)다시만나 백년동락(百年
 同樂)질거워라하며 간곳시업는지라 학진이 그노리를 들으미 정신이 황
 홀(恍惚)하여 급피드러가니 화각(畫閣)은 반공중(半空中)에 쇼삿는티
 풍경(風景)쇼리 속객(俗客)에 심스(心思)를 놀니는듯 점사(點々)뵈운
 (白雲)을 헤치고 드러가며 바라보니 황금대(黃金大字)로 현판(懸板)

학 진 전

의 써스되 옥천티스웅전(玉川大寺雄殿)이라 하였거늘 스문(寺門)의 다달
 어구룡장을집고 중계에 올으니 한노승이 몸에 금나가스를 입고 목에
 백팔염주를 걸고 황망(慌忙)이 나와마져 들어가 정결(淨潔)한 초당을
 치위 레팔좌명(禮畢座定)하며 금반(金盤)에 다과(茶果)를 쇼담하게 노
 와드리며 은근(懇懇)한정은 구면과 갖치하느니라 학진이 스레알 놀갓
 든초로의 못친속익을 이다지관티(寬待)하시니 감스무지(感謝無地)로쇼이
 다 노승이 답왈상공은 천상스를 생각지 못하시논잇가 엇지 초토속익
 (草土屬客)이라하시논잇가하고 무는 칩한권(冊一卷)을 주며보쇼셔 하거
 늘 바다보니 룩도삼략(六韜三略)과 손오병서(孫吳兵書)와 황석공(黃石
 公)의 비계(秘計)와 호풍환우(呼風換雨)지술법이 잇느니라 이러나 다시
 치스하니 노승이웃고 년적(硯滴)하느를 니여주며왈 이거시 비록 용렬
 하나 쇼승이 봉닉산(蓬萊山)의 갓슬씨 빅춘군선칭을 만났더니 올씨의
 이거슬 주시며 상공게 드리라하시기에 가져와스나 진중(陣中)의 가지

학 진 전

고다나다가 도적이 화공하면 이연슈등을 합덕선으로 두어번 치면 입
 으로 물은도하여 상전벽해(桑田碧海)되는거시니 가져가쇼셔 하거늘 주
 세(仔細)이보니 옥으로 식인거북이라 등에 하도락서(河圖洛書)완연하더
 라 빅비스레(百拜謝禮)하고 々금스(古今事)를 설화하다가 셔로난우어잘
 시 학진이 홀노안져 출전성공(出戰成功)할일을 생각하더니 홀연산악
 (忽然山岳)이 진동하며 무슨 쇼리 나가늘 나서보니 무슈한 스승이
 입의 창검을물고 스면에가득 하였느니라 학진이 크게호동하여도 스승
 이 조곰도 놀느지아니하고 점々(漸々)갓가이 드러오며 군스모양으로
 향오(行伍)를 차려섰느니라 이상하여 동정(動靜)을 살펴보니 동방(東
 方)이 발거오느니라 노승을 초져가나 노승은 간곳업고 무스글만 잇
 거늘 조세(仔細)이보니 하여쓰되 풍신(風神)을장유소(藏玉沼)하니 천조
 구룡장(天子九龍杖)이라 군녹장천군(軍祿藏天君)하니 막실득의쥬(莫失得
 意趣)라 하였거늘 그제야 도승이줄알고 공중을 향하여 빅비스레(百拜

학

학

전

전

謝禮(호고) 구룡장을 타고 스승을 호령(號令)하니 일시(一時)의 오마
 작디(五馬作隊)하여 진을치며 나갈식 스승(鹿)중의 한늘근 스승(老鹿)
 하니이잇서 능히 말을타며 둔갑(屯甲)을 타더니 완연호 디장의 기상
 (氣像)이라 출반주왈(出班奏曰)소성이 비록 지조업스오나 선봉(先鋒)을
 주시면 상공(相公)을 뵈시고 천하(天下)를 평정(平定)케할가 하니이다
 학학진이 우셔왈 네가 김성으로 둔갑은 학거니와 네본성이 경정이만
 하여 공산중에서 산양군의 총소리만나도 구학(溝壑)을 분별치 못하고
 도망호는디 학물며 만진중(滿陣中)의 시석(矢石)이 비오듯하고 조총과
 디포(大砲)가 무슈흔가온디 네엇지 살기를 바라리오 부질업시 디담말
 고 산중(山中)의 도라가 잔명(殘命)을 보전하라호디 그스승이 디왈소
 장(小將)이 비록 김성이오나 년치(年齒)가 미우놓앗스니 초소위 물구
 접신(物久接神)이로쇼이다 신릉씨(神農氏)는 우리 증조(曾祖)하라바지
 라 하우씨(夏禹氏) 구년지슈(九年之水)호실적의 니집의 세번오셔 나를

학

학

전

전

모셔가 치슈(治水)하는조화(造化)와 리음양순스시(理陰陽循四時)하는 법
 을못기에 혼가지로다니며 천하중성(天下衆生)을 건져쓰니 장군(將軍)은
 엇지 남의지조와 조화를알나오 그덕에 성공하미 하우씨칭찬(夏禹氏稱
 讚)호고 별호(別號)를 벽공정(碧空汀)이라 지어주시기로 산중의쳐하여
 코키리로정승승고 스자(獅子)로 병조판서(兵曹判書)을승고 호랑(虎狼)으
 로 포장(捕將)을승어 슬하에두고 잇섯스니 엇지무수옹이 아니올잇가
 세상의 불상할것슨 인성(人生)이라 평성 우슈사려(憂愁思慮)로 지닌다
 가 학년이못되야서 죽어지니 엇지한심(寒心)치 아니호리오 오늘々 장
 군께서도 구룡杖(九龍杖)과 합덕선(合德扇)과 월계갑(月桂甲)과 옥구연
 (玉球璉)내가지보비를 어덧스니 무슨근심함을잇가 그려호셔도 독장난명
 (獨掌難鳴)이란말이 잇스니 소성이 뒤를좃치면 엇지든々치 아니호을잇
 가 또한간밤의 옥황상제(玉皇上帝)께서 전교(傳敎)호스 천하스승을 모와
 옥천사의가서 백학진(白鶴振將軍)을 도아쥬라호시기에 왔스오나 상제분

부(上帝分付) 아니시면 장군이아모리 청하셔도 무가늌하(無可奈何)로 소
 이다 그러나 저군사(軍士)가 모양은 김성이오나 조화무궁화와 둔갑법
 은 다아는고로 만일적장과싸와 진세위급(陣勢危急)하면 일시에 돌(轉)
 이되어 저군의발을 붓치지못하오니 무슨염려잇는잇가 장군은 선봉을앗
 기지 마음소서하되 학진이 생각하니 하늘이 주심이요 산신(山神)이 시
 기시미라하교 즉시(卽時) 선봉을봉하니 여러스슴이 희색(喜色)이 만안
 (滿顔)하여 티장피호(大將旗號)를 써시되 청산의벽공장군독씨선봉장
 (碧空將軍鹿氏先鋒將)이라하엿더라 급히행군(行軍)할시 학진이 벽공의거
 동을보려하교 구룡장을 급히타며 합덕선으로 세번을치니 천디진동(天
 地震動)하며 운무즉유한가온되 구룡장이 화하여 룡이되어 중련의을나
 북으로 향하교저할시 학진이 선봉을 저축하니 말서선봉이 화하여 기
 러기(鴈)되어 청천의 높혀져서 나라가니 그제야 신의강물탄복하교 뒤
 를쫓아가니 그뒤라서 행군하는줄알니요 ○각설잇세에 북흉노(北匈奴)강

성하여 중국을뜻을두고 월봉도사(月峯道士)의 술법을비워 십년공부(十
 年工夫)하미 상통천문(上通天文)하교 주찰인의(周察仁義)하교 하달디리
 (下達地理)하며 풍운조화(風雲造化)를 임의로 부리는지라 불시(不時)에
 괴병(起兵)하여 중국으로향할시 호왕(胡王)이 제신(諸臣)을모와 명장
 (名將)을갈일시 길란(契丹)되로 선봉을승고 굴동학으로 부장(副將)을승
 고 마하들노 후군장(後軍將)을삼어 각々군사오천식(各々軍士五千式)거는
 리니 흉노스스로 티장이되어 군사십만을 거나리고 풍우(風雨)갓치나와
 옥문관(玉門關)을 세치고 물밀듯드러오니 향하는바의 막을스름이 업서
 만민의곡성(哭聲)이 천디진동하는지라 청주조사(淸州刺史) 주인걸(朱仁
 傑)이 사거동을보고 급하군사를 발하여막을서 선봉장길란되 정창출마
 (挺鎗出馬)하여 나서며 호통왈 주인걸은드르라 천시(天時)를모르고 갑
 여나를담하려하나 너의청춘(靑春)이 앓갑도다 부지럽시 죽임을저축말고
 쌀니항복(降服)하여 잔명(殘命)을 보전(保全)하라하며 달너드니 주인걸

이 々를갈고 상마접응(上馬接應)할시 거란되는본디 천상선관(天上仙官)으로 상제게 득죄(得罪)하고 호국(胡國)의 탄생(誕生)하여 월봉도스에 게 지조를비와 둔갑장신지술(屯甲將神之術)과 호풍환우(呼風換雨)지법을 무불동지(無不通知)하는지라 일기청주조스(一個淸州刺史) 주인걸이 엇지 당하리요 슈합이 못되어 거란퇴척죽으로 주인걸의 탄말을치니 그말이겨 구러져죽으니 주인걸이 당치못하여 도망할시 거란퇴우서왈 저갓튼어린아 히를 엇지쫓츠자부리요 제임군을 스로즈마 항복바드면 지연와셔 항복하리라하고 쫓츠가지아니하니 주인걸이 죽을함을다하여 도망할시 바로 황성의드러가 천조전에 통곡(痛哭)스죄왈 쇼신이 항마북홍노의 선봉장 거란퇴의게 죽게되었습더니 천행(天幸)으로 목숨을 도망하엿스오니 신의죄 만스무척(罪萬死無惜)이로소이다 천조드르시고 덕경하스 만조유태관(滿朝百官)을모와 방적(防賊)하시기를 의논할시 이부시랑 송문찬(吏部侍郎宋文讚)으로 선봉을습고 병부시랑 덩담익(兵部侍郎鄭淡益)으로 후

학 진 전

군장을습고 천지천이 중군이되어 불일행군(不日行軍)할시 명장이슈천이 요 군스삼십만이라 기차창검(旗幟鎗劍)은 일월을희롱하고 뇌고함성(雷鼓喊聲)은 천디진동하더라 잇세승상 송문경(丞相宋文景)은 선봉장송문찬형(先鋒將宋文讚兄)이라 평성의 찬역(篡逆)할뜻을 심중의품엇더니 잇세를당하미 가만이싱각하되 티장부설원지추(大丈夫雪怨之秋)라하고 편지를써서 그아오문찬의게 붓쳐스니 그셔의하엿스되 티장부제상의나미 엇지독々하게 남의아리잇서 헛도이 늘그리요 잇세를늦코 일을도모치아니하면 하날이 주시느복을 순종(順從)치 아니하고 반슈기양(反受其殃)하느니 동생(同生)은 천시를일치말고 북홍노의게 항복하여 천조를스로잡게하면 나른에서 빅판과 의론하여 티조와왕비를 스로잡아 죽이면 띤 하엇기는 여반장(如反掌)이요 비가천조되면 동성을 왕을봉홀거시니 그아니 띤복인가 부디명심불망(明心不忘)하여 세를일치말게하라 하엿더라 송문찬이 그형의 편지를보고 싱각하되 일은설스될지라도 티々국독지신

학 진 전

학 비 전 진 학 비

(代々國祿之臣)으로 었지 찬역이 되어 천추의 누명을 전하리요 하고 던즈
 전의 드러가 그편지를 올니고 복디형죄(伏地請罪)할 형의 죄 만스 무척이 음
 고 디역부도(大逆不道)하오니 형의 죄로 소신의 목을 베여 만분지일(萬分
 之一)이라도 분상심을 풀게 하옵소서 하니 천지 그편지를 보시니 일변분
 하시니 천리전장(千里戰場)의 나와서 적병(賊兵)은 스면의 가득하고 또
 홀선봉장송문찬이 죽고(直告)하느거슬 보시고 용서하소서 왈 네형이 불충
 하여 그른 뜻을 두어시나 네허물이 아니요 또한 던운(天運)이잇스면 네형
 이 아모리역적(逆賊)의 마음이잇스들 제엇지하리요 하시더라 잇셔에북
 흉뇌 던즈 천정(北凶奴天子親征)하신단 말을듯고 주야비도(晝夜倍道)하여
 드러오며 부장마학돌(副將馬學遁)을 불너왈 그디는 군스오천(軍士五千)
 을거나리고 바로장안(長安)으로가서 티즈와왕비를잡고 장안을 항복바드
 라하며 바로던즈진(天子陣)을 엄살(掩殺)하니 천지급피 제장을불너 방
 적(防賊)하라하신티 좌익장황익산(左翼將黃益山)이 상마출전(上馬出戰)할

학 비 전 진 학 비

시 호장갈란길(胡將契丹吉)의 창이빛나며 황익산의머리 마하에나려지니
 도총장주인걸(都總將朱仁傑)이 니다러외여왈 전일청주셔 궤흔분을 오날
 날씨스리라하고달녀드니 갈란길이 티호왈 전일너를 살녀보닛더니 그은
 헤를 생각지아니하고 감히어른을 티적(對敵)하느다하며 달녀드러 슈십
 여합(數十餘合)의 갈란길이 첫죽을드러 주인걸의 말을치니 그말이 슈
 십장밧개 썰러져 죽느니라 주인걸이 말게늘여셔 정신업시누엇스니 갈
 란길이 손으로잡어 본진으로도라가 썩지저왈 네천시를모르고 감이우리
 티병(大兵)을 항거(抗拒)하니 그죄맛당이 죽을거시오 전일살녀주엇거든
 었지 은혜(恩惠)을 모르느냐 하니 주인걸이티호왈 충신은불스이군(大呼
 曰忠臣不事二君)이라하니 었지너코튼 오랑키놈의게 항복하리요 어셔밧
 비 죽이라하니 갈란길이왈 임군섬기는충성(忠誠)은 다흐가지라하며 노
 아보이니 주인걸이 생각하되 무슨낫출드러 던즈를다시되리요하고 칼을
 물고 었더저죽으니 호병(胡兵)도 참혹(慘酷)이 여기더라 잇튼날 송문

찬아 룩포은갑(緣袍銀甲)을입고 천리준마(千里駿馬)를 타고나와 싸움을
청하니 걸란길이 마져와 슈합이못하여 걸란길의 검광(劍光)이 반공
에빛나며 송문찬의머리 마하의 날여지니 걸란길이 마로던진을 향하
여 좌충우돌(左衝右突)하니 군스머리 추풍낙엽(秋風落葉)일너라 ○화설
잇속에 승상송문경(丞相宋文景)이 제동성의게 편지하고 만조빈관을모와
의론왈 천즈천정하섯스나 북적(北狄)은 본디강포(疆暴)하고 방금피병
(方今起兵)하기를 명장 이천여원(名將二千餘員)이요 또한신동호도스잇서
결승던리지외(決勝千里之外)하고 호왕(胡王)은 던상스람으로 지모장략
(智謀壯略)이 과인(過人)하고 신출귀몰지조화(神出鬼沒之造化)를 가졌다
하니 관일국운이 불행하여 던지피항시면 그화를장차 엇지항리요 우리
무죄호던즈를 속절엄시 죽일거시니 제공(諸公)은 그일을장차 엇지항리
요 좌우제신(左右諸臣)이 일시에 출언(出言)호되 승상은 비계(秘計)를
너여 조흔도리로 말씀항시면 우리는 승상항시는되로 시행(施行)항을거

사니 밤비획척(獲策)을 말씀항음쇼셔 승상이거짓 탄식(嘆息)항여왈 두
가지계교잇스니 제공은 두가지중에 홀가지를 취하라하며 글즈두자를써
쥬거늘 바다보니 한즈는 반할반(叛)즈요 또한한즈는 달을쥬(走)라 제
공이 반할반(叛)즈를가지니 승상이왈 그일이 당합오의(定合吾意)로다항
며 공론(公論)이 분운(紛紜)항든츠의 슈문장(守門將)이 급고(急告)왈방
금호적(方今胡狄)이 북문으로 물미듯드러온다 항거늘 승상이급피 컬니
(關內)에드러가 티즈를보고 급항물고호되 티즈왈 던지출전(太子曰天子
出戰)항섯스니 국중티스는 승상임의로항라호되 송문경이 빈관을도라보
며왈 급히군스를 모호라하니 일시에 성니군스(城內軍士)를 불너드려
컬니의드러오니 승상이 영(命)을나리되 던지피항시고 호적(胡狄)이저갓
치 급피드러오니 너희들은 니말을쫓치라호되 제군이 엇지승상의 불치
흐마음을알나요 허락하니 승상이왈 지금국운(至今國運)이 다진하여 던
지호왕의게 스로잡피쓰니 우리만일 오난도적(盜賊)을 방비(防備)항다가

학 진 천

스불여의(事不如意)하면 우리던즈를 보존(保存)치못할거시니 너희는급피
 다투를 좇치라하고 바로내전(內殿)에 드러가니 궁중(宮中)이 요란하여
 곡성이 진동하는지라 왕비(王妃)와 티즈(太子)를다 결박하여 슈리우에
 놔피실고 북문으로 나아갈식 향셔써가지고 나가니 길란길이 절거하여
 바로 장안으로드러와 송문경으로 던즈를숨고 만군(萬軍)을호피하고 락
 성연(樂成宴)을 비설하고 즉시호왕게 승전(勝戰)호 연유를 주달(奏達)
 하니 호왕이 사귀별(寄別)을듯고 던즈를불너왈 네즈식(子息)과 계집
 (女)을 다즈바죽이고 송문경이 던즈되엿스니 너희들은 부질업시 장담
 (張談)말고 쌀너와 항복하여 잔명을보존하고 불상훈군스를 죽이지말
 나하니 던져이말을듯고 티로(大怒)하야 제장을 호령(號令)하니 제장이
 각々처즈가 엿저된줄물나 티적할마음이업고 군스도너을일어 싸할마음이
 업셔 한스람도 접전(接戰)홀지업스니 던져양던탄식왈(天子仰天嘆息曰)슈
 락던스직(數百年社稷)을 너게와셔 망할줄을 엿지알나요하며 티성등곡

학 진 천

(大聲痛哭)하니 엿저 천도무심(天道無心)하리오 잇셔에 빅학진이흥군하
 여갈식 바로장안으로 흥하더니 천기(天氣)를 살펴보니 천주의 직성은
 체운이지고 호왕의직성은 살피등々하니 필연(必然) 던져 호왕에게 육
 (辱)보시느줄을 짐작하니 어더기신줄물나 답々하야 선봉장벽공정(先鋒
 將碧空汀)을불너왈 천지방금 호왕의게 육을보시니 그티는바로 천즈기
 신덕로 흥군하라하니 벽공정이주왈 송문경은 티즈와 왕비를즈바 호왕
 길란길에게 밧치고 즈칭던즈하옵고 던즈게셔는 방금 호왕의게 육을보
 시나 천운이 진치아니하야 필경잡피지 아니하셔고 피화할거시니 장군
 은바로 장안으로 가심이 을할가하나이다 학진이 사말을듯고 불승분과
 (不勝忿氣)하야 바로 장안으로가니 잇셔길란길이 천기를보니 흥썬군마
 공중(軍馬空中)으로 오느니라 급피 송문경의게 드러가주왈 소장이 천
 괴를 슬퍼보오니 엿더하사람이 신병(神兵)을모라 공중으로 흥군하니이
 사람은 범상(凡常)하 사람이 아니오니 급히방적하게 하소서하티 송문

학
전
전
전

경이 더 경왕 이 일을 장차 엿지 할을 잇가 군중사(軍中事)는 장군이 임의로
 호소서하니 결란길이나와 제장군졸(諸將軍卒)을 불너왈 금야의 창검(長
 安)으로 공중을 향하야 세우고 궁시(弓矢)로 공중을 쏘라하며 장안장외(長
 安)에 등불을 도사 달고 밤을 지니니 빅학진이 공중으로 향하야 가
 다보니 장안의 등불은 휘황(輝煌)하되 창검(鎗劍)이 서리갓치 공중을
 향하얏스니 아모리 저조잇스들 엿지하리요 선봉장 벽공정을 불너문왈
 방금저세 이러하니 엿지하면 조호리요 벽공정이왈 금야(今夜)의 할슈
 업스니 명일조처(明日措處) 할을가 하느이다하고 퇴병(退兵)하야 동문
 (東門)밖 화악봉(華岳峯)아리에 유진(留陣)하고 편이쉬라하며 일시에든
 갑법(屯甲法)을 향하야 스슴이되니 누가 군스잇는줄 알니요 결란길이
 밤중은하야 천고를다시보니 오든신병은 간곳이업고 화악봉에 살기(殺
 氣)가 등등흐지라 놀이시기를 기더려 밝는들 만군(萬軍)을 회동(會
 動)하야 화악봉을 스면(四面)으로 에워싸고 염초(焰燄)를 스면의무더

학
전
전
전

일시에 불을노으니 화광(火光)이 충천(衝天)하야 나느니라도 피흘슈업
 더라 잇씨학진이 옥천사노승(玉川寺老僧)의 말을싱각하고 연적(硯滴)을
 너여 손의들고 합덕선으로 두번치니 옥구연(玉球璉)이 화하야 공중의
 날너다니며 입으로 비를토(吐)하니 불시에 비가 열길물을 일우니 불
 은고스하고 만군이 물에싸져 죽느저 반이넘은지라 결란길이 싱각하니
 아즈(俄者)에 빅일청천(白日青天)이 스갓치 티우(大雨)를 너리시니 이
 는 청령무심(丁寧無心)호 일이나니라하고 다시 천고를보니 비가 청천
 의셔오지아니하고 무스김성이 공중으로 날어단이며 입으로 물을토(吐)
 하는지라 결란길이 티로하야 승천법(昇天法)을 향하야 비슈(匕首)를좌
 슈(左手)의들고 우슈(右手)로 신편(神鞭)을들고 공중을향하야 옥구연을
 쏘치니 옥구연이 결란길이 을노오느거슬보고 입으로물을 바로오느길을
 향하야 토(吐)하니 아모리저조잇스들 제엇지 을노을이요 할슈업서 장
 안으로 다라느거늘 빅학진이 구룡장을타고 합덕선으로 세번치니 화하

학 전

여 공중을 향하여 걸란길을 쫓아가니 걸란길이 정세(情勢) 위급(危急) 하여 죽을심을 다하여 장안으로 드러가니 송문경이 급피나와 마져드 러가 의론왈 평생직조(平生才操)를 비웠스나 이번의 처음보는 김성을 보고 처음보는 신장을보니 화가장차 머지아니하오니 어서밤비 호왕에 게 청병(請兵)하옵소서하고 의론(議論)이 분분(紛紛)하든츠의 백학진이 뒤를쫓츠 장안의 드러갈시 벽공정은 육노(陸路)로갈시 물이스면의 가 득야야 사름심으로는 갈슈업는지라 구년지슈 다스리든 법으로 흥군하 야 드러가니 보든사름들이 탄복(嘆服)하며 다투워 구경하더라 학진이 공중의셔 외여왈 호장걸란길(胡將契丹吉)과 역적송문경(逆賊宋文景)은 너합덕검(合德劍)을 바다라하며 옥구연은 제비(燕子)갓치 나라들며 입 으로 비를도하되 동의물이 나오니 장안이 소(沼)가 되엿더라 걸란길 이 생각하되 죽기논 일반(一般)이라하고 육정육갑(六丁六甲)붓쳐 신병 으로 몸을감초고 등천(登天)하야 학진의 오는길을막으니 구룡장이 쉼

학 전

리로치니 신병(神兵)이 허터지며 걸란길이 싸에너려지니 벽공정이 달 너드러 뒤발(後足)노차니 걸란길이 창검으로 아모리 막은들 엇지당하 리요 여러사슴이 달너들어 발노치고 머리노바드니 견디지못하야 다라 나가날 여러사슴(鹿子)이 일시에 화(化)하야 가는길에 돌(石)이되야 협(險)하기 측량업셔 갈슈전혀업셔 탄식하고서더니 학진이 합덕션으로 한번치니 머리가 천조각이느되여 죽는지라 바로궐문(闕門)의 다스르니 슈문장(守門將)이 길을막거늘 구룡장이 쉼리로치니 일시에 헛터지느니라 드러가 송문경을자바 문죄(問罪)후후 군중회시(軍中回示)하고 쳐참 (處斬)하니 만민에 질겨하느소리 장안이 진동하더라 학진이 벽공정을 불너 티즈와 왕비를 차즈오라하되 병공정이 령(令)을듯고 스방(四方) 으로 두로츠지니 호곳의 지함(地函)을파고 무덤거늘 백학진장군(白鶴 振將軍)이 송문경과 호장걸란길을 스바죽이고 모셔오라 하느이다하되 티즈 이말을듯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야왈 우리는 장군의힘을입어 스

학 비 전 진

라가거니와 방금천제 호왕에게 잡혔다하니 스승(死生)을물느 답々호호
 니 장군은급피 천주를구하여 주옵소서 환궁(還宮)하니 빅학진이 계하
 (階下)에나려 청죄왈(請罪曰) 소장은 하동사에서 스옵더니 천기를보옵
 고 슈만리를 오스호은죽 자연(自然) 더덕여 호장파 역적 송문경의게
 옥을 당하셨스니 신의죄 만스무셔(萬死無惜)이로소이다하니 티져 학진
 의 손을잡고 빅비스레왈 우리모조(母子) 장군곳아니면 죽기를 면치못
 할거시오 또 종묘스즉(宗廟社稷)을 망케되얏슬거신티 하늘이 장군을보
 니사 이갓치 신귀호오나 천주를 구하여주시면 그공은 죽어서 결초보
 은(結草報恩) 호을거시니 장군은 수고를 앓기지말고 밤비가게 호소셔
 하며 무슈이결하니 그호성(孝誠)을 니아니 감동(感動)호리요 빅학진이
 즉일발행(即日發行)호시 티즈도 갓치가기를 청호티 학진이 알외되 동
 궁(東宮)의 말숨은 당연(當然)호오나 소장의 흥군호는법은 공중으로가
 오니 사제가 동행치못 호는이다호고 죽시 구룡장을타고 선봉장을 지
 축하니 백공정이 군사외게 령을나려 흥군호시 일시에 기러기되여 공
 중으로나라 일즈(一字)되며 학진은 호군장이되여가니 티즈와 만민이보
 고 신출귀몰(神出鬼沒)호을 탄복호더라 잇씩천즈 홀슈업셔 전군(前軍)
 을 호령호여 호왕을접응호시 호장마학돌이 니다러 달녀드니 검술(劍
 術)과 창법(鎗法)이 괴묘호야 당홀슈업스니 천지 생각호되 도망호여
 장안으로 갈가호더니 군식치보(馳報)호되 승상문경과 호장결란길의 왕
 비(王妃)와 티즈를 주바다죽이고 장안을 항복바닷다하니 던지 정신이
 업셔 탄식만호다가 도적의 성세가장 위급호지라 주결코즈호다가 홀연
 생각하니 니목숨이나 도모(圖謀)호여 도망(逃亡)호야 각국청병(各國請
 兵)이나호여 송문경의 원슈(冤讎)를 갹는거시 을도다호고 군사복색(軍
 士服色)을입고 도망호야 다러나니 호왕이 천즈도망호줄을알고 급피죽
 츠 장안으로 흥호더니 호군(胡軍)이 도망호야 호왕게 장안소식을 전
 (傳)호티 호왕이더욱 분노(忿怒)호야 급피드러올시 서주(徐州)지경에서

학 비 전 진

라가거니와 방금천제 호왕에게 잡혔다하니 스승(死生)을물느 답々호호
 니 장군은급피 천주를구하여 주옵소서 환궁(還宮)하니 빅학진이 계하
 (階下)에나려 청죄왈(請罪曰) 소장은 하동사에서 스옵더니 천기를보옵
 고 슈만리를 오스호은죽 자연(自然) 더덕여 호장파 역적 송문경의게
 옥을 당하셨스니 신의죄 만스무셔(萬死無惜)이로소이다하니 티져 학진
 의 손을잡고 빅비스레왈 우리모조(母子) 장군곳아니면 죽기를 면치못
 할거시오 또 종묘스즉(宗廟社稷)을 망케되얏슬거신티 하늘이 장군을보
 니사 이갓치 신귀호오나 천주를 구하여주시면 그공은 죽어서 결초보
 은(結草報恩) 호을거시니 장군은 수고를 앓기지말고 밤비가게 호소셔
 하며 무슈이결하니 그호성(孝誠)을 니아니 감동(感動)호리요 빅학진이
 즉일발행(即日發行)호시 티즈도 갓치가기를 청호티 학진이 알외되 동
 궁(東宮)의 말숨은 당연(當然)호오나 소장의 흥군호는법은 공중으로가
 오니 사제가 동행치못 호는이다호고 죽시 구룡장을타고 선봉장을 지
 축하니 백공정이 군사외게 령을나려 흥군호시 일시에 기러기되여 공
 중으로나라 일즈(一字)되며 학진은 호군장이되여가니 티즈와 만민이보
 고 신출귀몰(神出鬼沒)호을 탄복호더라 잇씩천즈 홀슈업셔 전군(前軍)
 을 호령호여 호왕을접응호시 호장마학돌이 니다러 달녀드니 검술(劍
 術)과 창법(鎗法)이 괴묘호야 당홀슈업스니 천지 생각호되 도망호여
 장안으로 갈가호더니 군식치보(馳報)호되 승상문경과 호장결란길의 왕
 비(王妃)와 티즈를 주바다죽이고 장안을 항복바닷다하니 던지 정신이
 업셔 탄식만호다가 도적의 성세가장 위급호지라 주결코즈호다가 홀연
 생각하니 니목숨이나 도모(圖謀)호여 도망(逃亡)호야 각국청병(各國請
 兵)이나호여 송문경의 원슈(冤讎)를 갹는거시 을도다호고 군사복색(軍
 士服色)을입고 도망호야 다러나니 호왕이 천즈도망호줄을알고 급피죽
 츠 장안으로 흥호더니 호군(胡軍)이 도망호야 호왕게 장안소식을 전
 (傳)호티 호왕이더욱 분노(忿怒)호야 급피드러올시 서주(徐州)지경에서

학 진 전

1. 학진을 만나 유진하고 접전홀시 호왕이 상마타호(上馬大呼)왈 너는엇
 더흐름으로 천시를모르니 네왕을니가 사로잡어 진중(陣中)에 가두엇스
 나 너는불상흔 군사를 죽이지말고 쌀이나와 항복하여 잔명을 보존하
 라하며 달녀드니 학진이 구룡장을 경계(警誡)하야왈 방금천제 호진중
 (天子胡陣中)의 계시다하니 너는밤비 천주계신곳을 가르쳐 호진을 흠
 몰(陷沒)하게 하여라하고 선봉장 벽공정을 불녀왈 그디는 중련의셔셔
 시석(矢石)으로 호군을치면 나는호왕을 사로잡어 던즈의 급하시믈 구
 완(救完)할거시니 급피형군하라하고 학진은 육디로형홀시 필마단피(匹
 馬單騎) 썸이요 벽공정은 기러기되여 중련의셔셔 시석으로 호군을치니
 호왕이 신병(神兵)인줄알고 추귀문(逐鬼文)을 외오며 오방신장(五方神
 將)을불녀 신병을 물니치라하니 신병이 아닌데 추귀문이 쓸티잇스며
 신장인들 엇지홀이요 또흔학진은 필마로 호진중의 드러와 합덕선으로
 군사를치면 일시에 백여보식(百餘步式) 나아가 잡바지고 옥구연은 입

학 진 전

2. 으로 물을떨여 호진중의 티우(大雨)가와셔 군식 물에빠져죽으니 호왕
 이 견디지못하야 도망하니 중련의엿든 선봉기러기 일시의 가는길에힘
 약흔 바위되니 제엇지 도망하리요 학진이 급히쫓츠가며 합덕선을 급
 허붓치니 호왕의눈에 검광(劍光)이 진중의가득하야 오는사람을 불슈업
 스니 마음이 황겁(惶懼)하야 말개나려 항셔(降書)를 밧치고 이걸(哀
 乞)왈 소왕(小王)이 요망(妖妄)흔 도사에말만듯고 던시를물나 망발성
 의(妄發生意)하얏사오니 맛당이 죽어남지못하오나 잔명을 보존하게하시
 면 기과천선(改過遷善)하와 티국을 극진이 섬기올가시니 살녀주옵소서
 하니 학진이 바로죽이려 하다가 던즈계신곳을물나 아즉용셔(容恕)하고
 쑤지저왈 내천주는 엇지하엿는디 밤비계신곳을 가라치라하니 호왕이왈
 접전(接戰)은 아니하고 어디로가섯스니 실상계신곳을 알슈업는이다하니
 학진이 티로하야 합덕검으로 치고즈하니 호왕이 다시비러왈 과연(果
 然) 실상(實想)모로오나 잠간(暫間)용셔하시면 소왕(小王)이 두로츠져모

학 박 진 전

서울이다하니 학진이 그진정(眞情)을 모로나 너심의 호왕이만일 거짓
말노 잠시(暫時)죽기를 도모하나 제엇지 비상던(飛上天)하리요하고 티
질왈(大叱曰) 네말이 모셔온다하니 금일(今日)로 모셔오게하라 만
일한시를 어기면 너를죽이고 네쳐(妻子)를 흠몰할거시니 그리알는흔
티 호왕이다시 복디사죄(伏地謝罪)하고 정신을진정하야 천기를살피보니
천주괴운이 남방에 빗치엇거늘 급히학진압해 나아가 복지쥬왈 천주괴
서 정령청병(丁寧請兵)을 가섯나 시푸오니 장군은 던기를 살피쇼셔하
거늘 학진과 벽공정이 던기를살피보니 던주괴운이 남방에잇는지라 호
왕의말이 을도다하고 호왕을묵거 진중의두고 남방으로 급히가니라 이
적에던제 구완병(天子敕完兵)을 청할시 금방연왕을 초주가 연왕(燕王)
을보시고 전후말씀을 낫々치하시니 연왕이 복디등곡(伏地痛哭)왈 신이
만리 밖게잇셔 이갓치되신줄을 모르고 안연히잇셔 전하를뵈오니 엇지
신주(臣子)의 도리라호오릿가 불충지죄(不忠之罪)는 만스무셔(萬死無惜)

학 박 진 전

이로쇼이다하시던지연왕의손을잡고당상의을나가단식왈(嘆息曰)막비던운(莫
非天運)이요짐(朕)이박덕(薄德)하야이런변을당하얏거늘연왕은엇지불충지죄
라하시오방금스제금하시니박비군스를말하야주기바라노라하시던연왕이일변만조
박관을불너정병십만(精兵十萬)과명장천여원(名將千餘員)을조말하노라하고또겨
서(檄書)를써서위왕의게보이니위왕(魏王)이연왕의급흔겨셔를보고또흔구완병
을보이니라이씨의학진이던주를초남방으로가더나하로는길쥬(吉州)씨의다々
르니엇더흔군스가만산편야하야오거늘가마니은신(隱身)하고그동정을보다가벽
공정을불너왕장군은너편지가지고저기오는군스를쥬고오라흔디벽공정이죽시편
지를가지고오는진중으로행하야갈시거러기되어편지를입에들고공중의셔오는군
스디장(軍士大將)압헤나려치니군석급히쥬어셔디장압해가올나거늘쥬여보니하
얏스되저기오는군스는엇더흔군스며어디로가는다구완병이면거귀며무르고그러
치아니하면너게갈을바드라나논청쥬(淸州)씨스든박학진일너니던주의위급(危
急)하신소식을듣고을나가역적송문경과호왕걸란길을다죽이고바로호왕을쫓초
가셔호왕은즈바스나던지아니게신고로던문을본죽구완병을청하러가신가하야던
주를초주가는사람이라하얏더라청병장(淸兵將)이그글을보미진위(眞僞)를알슈
업서던주씩드러가그스연을알윈디던주도또흔듯지못하든사람의일흔이라일희일
비(一喜一悲)하야왈 짐도모르는사람이라그말이괴특하니답서(答書)를하야보니
라하시니죽시답서를하야보이니그글에하얏스되전일(前日)의한번도셔로보지는

못하얏스나 위국진충하야의병을창피하고강적호왕(疆賊胡王)을스로잡고반적송
 문경을죽이고던즈를츠불원천리하고온다하오나듯기에감축한마음엇지형언하
 오릿가나도방금던즈를피시고구완병으로가논길이나장군은군스를거기머무르
 시고단기로오시면던즈씩외웁고저서흔스연을설파함면그아니조흔일이오닛가쇼
 장이나아가되일이오나던즈의명령(命命)이게시기로못가웁고방즈히청하오니
 허물치마옵시기를바라옵노이다하얏더라학진이그글을보고구룡장을타고월계갑
 을입고좌슈의옥구연을쥐고우슈의합덕션을들고선봉장벽봉정을다리고급히나아
 가던즈씩북디청죄홀디던져보시고되희(大喜)하샤문왈(問曰)장군의성명(姓名)
 은드릿거니와거주(居住)는어디잇스며짐(朕)의금호줄은엇지알고의병을창피(叛
 起)하야강적쇼멸(疆賊消滅)하고반적(叛賊)을죽였다하니짐의마음농미(夢寐)박
 기나그공은만고의드문공이라던하를반분(半分)을들엇지다갑푸리요하시고친히
 술을너여주신디학진이전후스연(前後事緣)을엿좁고환가하시기를청홀디던져글
 으샤디연왕의게겨서(檄書)를전하고가논거시을타하시고즉시물너나와겨셔를써
 보니고한궁하실시던즈는벽공정을타시고학진은구룡장을타고되군(大軍)을모라
 오실시반공에소스오니슈일자니(數日之內)에장안의드러왔는지라던져황극전(天
 子皇極殿)에전좌하시고되즈(太子)와왕비(王妃)서로맛나미비회교점(悲懷交接)
 하야죽엇든사름맛남과갓치여취여광(如醉如狂)하시며벽학진의공을못너치하(致
 賀)하시고군진(羣臣)을불너되연(大宴)을비설(排設)하야질길식벽학진으로진왕

(晉王)을봉하시고벽공정으로병부상서(兵部尙書)를봉하야던하강산만슈지군(天
 下江山萬壽之君)을삼으시고좌우제장(左右諸將)과군사(軍士)는츠레로공(功)을
 포(布)하시니일시(一時)에만세(萬歲)를불으며춤을추너되평의상(太平氣像)을
 형언(形言)홀슈업더라이던져공주(公主)하나를두었스니인물이비범하고시서
 벽가(詩書百家)를무불동지(無不通知)하며임스(姪)의덕이잇스되던져스랑하
 스부마(附馬)를간탁(揀擇)하시더나학진을보미인물은세상사름이나나오또홀져
 조논제갈공명(諸葛孔明)이라도당치못할거시오쳐즈(妻子)가업다하미던져왕비
 (王妃)로더부러부마숨기를의문하시니왕비질겨하스벽학진을불너왈짐이홀났녀
 식이잇서경의건질빛들게하느니경(卿)의마음이엇더하요하신디학진이면관돈슈
 (免冠頓首)하고엿जू오되쇼신(小臣)은본리하방미천(遐方微賤)홀신하옵고지금
 신의나히삼벽십삼세(三百三十三歲)이오나엇지부마가되오릿가폐하(陛下)는천만
 번죄를용서(容恕)하옵소서홀디던져왕경(卿)의나히삼벽십삼년이라하느니엇지저
 다지청춘홍안(青春紅顏)이노경은스양치말나하신디학진이전후리력(前後來歷)
 을나스치고하느니던져드르시고신기(神奇)함을무수단복(無數嘆服)하시고왕비다
 러그말을다하시며선녀(仙女)와연분잇는말이며월계설두엇단말슴을나스치하
 니왕비도탄식(嘆息)만할츠에공주것히있다가머리를나작이숙이고쇼리를부드럽
 게하야왈부마에하시논일을쇼녀(小女)가말슴하논거스레례(體禮)가아니오나부
 왕(父王)씩서만조제신을티하와쇼녀로진왕을쥬신다하시고또홀져왕을티하야허

혼(許婚)은 섰스니 엇지 만승련즈(萬乘天子)로 령을 두가지로 호오릿가 진왕은 임의
 취처(娶妻)호얏다 호여도 쇼녀는 타문(他門)의 갈마음이 업스오니 천만번하간(千
 萬番下揀)호옴소셔 호거늘런즈와 왕비싱각호니 그말이 당연(當然)호지라 할일업
 셔다시 진왕을 청호야 공주(公主)의 말을 호고 혼인을 청호티 학진이 어명(御命)을
 거역(拒逆)지 못호야 허락(許諾)호니 런지 죽시 턱일(擇日)호야 히례(行禮)호실시
 조출호풍쳐는 사름에 정신(精神)을 놀디더라 그날밤의 한숨을 어드시니 하늘노선녀
 션관이 무지기를 타고 내려와서 첫해안저 말호되 진왕은 엇지 옛날일을 싱각지안노
 우리모녀(母女)는 봉니산명학동(蓬萊山鳴鶴洞)으로 내려와잇슨 지임의 오린지라
 그디는 섰스(昔事)를 싱각지아니 호고 인간즈미(人間滋味)를 못쳐런즈의 부마가되
 엇스니 그디지 무심호일이어티잇스리 호고 거늘놀나 쉰다르니 남가일몽(南柯
 一夢)이라 진왕이 꿈을 써어싱각호니 영춘산초당(迎春山草堂)에서 보든 선랑(仙
 郎)과 월계녀즈(月桂女子)가 눈에 분명호지라 정신이 쇠락(灑落)호야 등축(燈燭)
 을 밝히고 섰스(昔事)를 싱각호야 비감(悲感)호을 마지안러니 달빛(月色)치스창(紗
 窓)에 밧치며 공중으로 션악(仙樂)소리나며 두줄기 무지키 방중의 서더니 션관이
 옥황상제에 명을 바다나려와서 진왕씨가기를 청호거늘 할일업셔 공주를 써여스연을
 말호티 공췌드르시고 탄식왈티왕(大王)은 션연(仙緣)이잇서 상제씨셔 명초(命招)
 호시니 엇지가 시지아니 호오릿가 마는첩(妾)은 죄악(罪惡)이심중(甚重)호와 비년
 을 독숙공방(獨宿空房)호을 일을 싱각호오면 츠라리티 왕압헤서 죽어호(魂)이라도

티왕을 되사벧는이다 호고 기절(氣絶)호니 진왕이 만단키유호야 겨우 환성시기고 구
 룡장을 타고 공중을 호호야 호호탕탕(浩浩蕩蕩)호며 올라가니 공췌할일업셔 공중을
 호호야 축슈호며 비비스레호시니 그형상형용(形狀形容)을 볼수업더라 학진이 션관
 을 쟈라호곳에 가니 주궁피컬(珠宮貝闕)이 웅장(雄壯)호데 정전(庭前)에 괴화요초
 (奇花瑤草)만발호중에 잉무공작(鸚鵡孔雀)은 쌍쌍이 넘노는 거동은 사름을 보고 반
 기는듯 비옥루상(白玉樓上)에서 한쌍 션녀나와 진왕을 인도호거늘 쟈라드러가니 혼
 미인(美人)션녀 호동즈(童子)션녀를 첫해안치고 머리에 봉천화관(奉天花冠)을 쓰
 고 옥교상(玉轎上)에 안젧다가 진왕드러옴을 보고 몸을 굽피마즈드러 좌정후에 옥동
 션녀를 명호야 진왕씨비레호라호니 진왕이 황공(惶恐)호야 왈 소성은 인간에 천호사
 룡이라 션관탑하(仙官榻下)에 오기는 상제분부(上帝分付)잇셔 왓스오나 미천(微賤)
 호사름을 엇지이다 지관디(寬待)호시닛가 호티 션녀왈(仙女曰)난군(郎君)은 엇지
 청주스든 일을 싱각지 못호시닛가 저아히(兒孩)는 우리 설월계로 소이다 호고 금낭
 (金囊)은 설녀 환약(丸藥)호니 키를 닮여 술에다셔 주거늘 바다 먹으니 청주일이 완연이
 어제 호호지라 그제야 호스호야 왈 파연지 금야 호싱각호오나 부인은 엇지 이호치미 천
 호사름을 판티호시닛가 호호야 만단정희(萬端情懷)를 못다호야 쉰벽복소리나며 부
 녀나러나 의상(衣裳)을 곱쳐호며 낙누(落淚)호야 왈 상제께서 분부호시기를 진왕은
 인간에다시缘分(緣分)을 미쳐송련즈(宋天子)의 공주(公主)와 호치비년히로(百年
 偕老)호라호 섰스니 너는 오날밤에 네 남군을다시 맛나스니 월계나췌어 인간에다시

가게 할라 하시니 엇지 상제에 영을 거역 할리 오흐며 월계의 손을 잡고 모녀 리별하는 거
 동은 차마 보지 못할너라 조금 잇다가 되성벽력(雷聲霹靂)이 락디진동하는 놀나서
 다르니 남가 일몽이라 공주도 몸을 놀나 이러안지며 삼말을 하여 서로 의논하니 들에 삼
 이다 이상한지라 그달부터 락기(胎氣) 잇서 심삭이 당하미궁중에 향기 진동(香氣振
 動) 하더니 서귀영동(瑞氣玲瓏) 하며 하늘 노선녀 한쌍이나려와 향슈(香水)에 목욕
 지계(沐浴齋戒) 시기고 간디업는 지라 아히상(兒孩相)을 보니 일기 옥동녀라 좌슈
 가온디 불근글즈 잇거늘 세(仔細) 보니 월계라 사엿더라 진왕이 락게 청하야 공주
 를 다리고 고향으로 가기를 청하디 락진분부하시되 경은 나의 슈족지진(手足之臣)이
 요또흔부마(駙馬)가 되엿스니 멀리 떠날 슈업다 하시고 동학봉(東鶴峯)아리다가 궁
 궐(宮闕)을 지엿스니 영춘각만화당(迎春閣滿化堂)은 진왕이 거처(居處) 하시고 봉
 황각인화각(鳳凰閣仁化閣)은 공주 거처 하시게 하시고 진청정일락정(進淸亭一樂
 亭)은 각석악공을 두게 하시고 좌우익랑(左右翼廊)은 슈천간을 지엿스니 웅장하고 화
 려호고 상은 일필난고(一筆難記)라 세월이여 류하야 월계의 나히이 팔이라 락상선
 녀로 인간에 적강(謫降) 하엿스미 화용월티(花容月態)와 요조(窈窕)흔 락도는 인간
 에 업고 시서(詩書)를 무불동지하시니 진왕과 공주이 지중지(愛之重之) 하야 저와 다흔
 비필(配匹)보기를 바라더라 각설이 석에 축국왕(蜀國王)이 사름을 보니 여청혼(請
 婚)하거늘 진왕이 영접(迎接) 하야 전후니 려(前後來歷)을 묻고 축국왕에 근본을 지
 세히 무르니 레관(禮官)이 복디 하야 엿조 되성은 녹이 오명은 춘삼이 오별호는 벽공

정오던 자게서 병조판서를 주시고 만슈지군을 봉하엿더니 축왕이 무도하야 벽성을
 못살게 하미 벽공정이 군스를 거느리고 축을 처항복 밧고 창곡(倉穀)을 훔터 벽성을 진
 무(賑撫) 하기도 만슈등으로 가고 조흔츠에 일국벽성(一國百姓)이 만집(滿集) 하야
 세 위왕을 섬엇더니 벽성을 주식(子息)코치 사랑하시미 일국의 동요(童謠)가 낭즈(浪
 藉)하야 왈 요순일월(堯舜日月)을 다 시본다 하야 락평 락디 십여년이 읊고 락노는 방금
 십오세 읊거니와 세상 사름이 칭송(稱頌) 하기를 인간 사름은 아니라 하옵는 이다 하니
 진왕이 싱각하시니 전일만슈동(前日萬壽洞)에서 만나 선봉으로 다리고 가든 벽공정이
 라 님심에 분하 다마는 조흔말 노일너 보니 고 축왕의 스연을 락게 주달하시니 락진로
 하스군스를 발하야 축왕을 쳐 무레흔 죄를 못갓다 하시니 진왕이 다 시 슈알아 모리 무레
 하오나 전공(前功)을 싱각 하오면 엇지 군스를 발하야 치오며 축국인심이 귀화(歸和)
 되여 요순시절 만났다 하오니 인심은 곳 천심이오니 만일 군스를 들어 쳐다가 스불여의
 왕의 부즈를 부르시면 제 엇지 락츠의 명령을 거역 하오릿가 저의 부죄 오거든 인의(仁
 義)로써 저지리과(改過) 하면 도로 보닉읍고 만일 불공하면 소신이 잡아 후환(後患)
 을 업시 하는 것만 갓지 못하는 이다 락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름다 이여 기스즉시 하교
 하스되 축왕에게 조서를 보니라 하시니 진왕이나와 락츠의 조서를 써보이니 그셔의 하
 양스되 축왕을 본지 십여년(十餘年)의 소식을 몰나 슈쇼간절(晝宵懇切) 하더니 천만
 몽외(千萬夢外)에 들은즉 축을 처고 벽성이 세 위왕을 섬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니

학 진 전

일국이무스(無事)하다 혼쇼문이낭즈(浪藉)하니 짐이 듯기에 엇지 반갑지 아니하리
 오또한 진왕게 청혼하얏다 하니 진왕은 곳짐의 부마라 피츠(彼此)에서로 만나면 그리
 든 정회도 풀거시오 혼스도의 론하미 엇더하뇨 아모리 국스(國事)가 총々 하야도 한번
 와서 짐(朕)의 올도 지정(儻到之境)을 풀게 하미 엇더하뇨 바라고 바라고 하섯더라
 진왕이 조서(詔書)를 써서 보니 고니전(內殿)의 드러가 공주게 전후스연을 말습홀티
 공쥬듯고 티로(大怒)하야 왈 왕은 근본사름도 아니오 김심으로 조고 마흔 제 조잇기
 로 제가 엇지 범남(犯濫)홀 뜻을 두어 우리게 다 청혼하오릿가 맛당히 버힐 즉하오나 승
 상(丞相)에 널부신덕티(德澤)과 티왕(大王)의 인후(仁厚)하신마음으로 용서(容
 恕)하시고 조서로 불넛스나 만일 오거든 죽여 후환을 없게 하쇼서 하니 이세월게 쇼제
 (月桂小姐) 부왕과 공쥬를 피시고 것헤 잇다가 그 말을 듯고 화용(花容)을 나죽이 하야
 공순(恭順)히 엇조오되 벽공정은 대왕의 선봉이 요오날은 축왕(蜀王)이 되엿스니 근
 본은 스슴(鹿)이라 하셔도 지금(至今)은 인형(人形)이 완연(完然)홀고로 축왕이 되
 엿스니 필경련상(天上)사름으로 상제(上帝)게 득죄(得罪)하와 김싱허물을 입고 잇
 든가 시부 읍고 또 홀엿적 신통씨는 인신우슈(人身牛首)라도 만고성인(萬古聖人)이
 오니 엇지 근본 김싱을 혐의하오릿가 홀티 진왕이 티척(大責)왈 너는 녀즈(女子)라 엇
 지그런 일에 총레하노뇨 홀티 공쥬(公主)도 웃고 녀아(女兒)에 말이 올타 하시더라 축
 왕이런즈의 조서를 밧즈와 보고 죽일 말히(即日發行)홀시 제아 달을 다리고 대국(大
 國)을 향하야 가니 세상(世上)사름은 축왕이 가는 것을 모르더라 삼일(三日)만에 장안

학 진 전

(長安)에 득달(得達)하야 진왕게 통지(通知)홀티 진왕이 마자 드러져년(積年) 못보든
 정담(情談)을 하며 전일전장(前日戰場)에서 고싱(苦生)하든 일을 설화(說話)하며 기
 간축나라에 들어가 쳐서 멸(滅)하노나 오는 데 박성들이 길을 막고 왕을 숨어 축왕이 된
 말과 아달을 나어 사랑하다가 미과(媒婆)가 와서 진왕의 공쥬가 숙녀(淑女)라 하기에
 진왕이 누신 줄 모르고 청혼(請婚)하얏더니 런즈에 조서를 밧즈와 보온 죽진왕은 황상
 의 부마요 전일 만슈동(前日萬壽洞)에서 피시고 호적(胡賊)을 치려 갖치가 시든 박원
 슈(白元帥)라 하섯스니 소왕(小王)이 만일 그러하실 줄 아랏스면 엇지 안져서 청혼하
 오릿가 불공지죄(不恭之罪)노 만스무석(萬死無惜)이로 소이다 하고 아달을 불너 진
 왕게 뵈오라 홀티 심오세된 아희가 드러오거늘 진왕이 눈을 드러한 번 보미정신이 아득
 하고 다시 보미양목(兩目)에 광채(光彩)노티 양(太陽)의 운을 가진 듯하코 얼골은 형산
 벽옥(衡山白玉)이 오기상(氣像)이 엄숙(嚴肅)하야 몸이 절노움지기에 이르러서 니 드러
 와 레를 극진(極盡)히 홀티 마저 안져서 조고 흥망성쇠(自古興亡盛衰)와 혼오병서(孫
 吳兵書)를 무러보니 부불 등지 홀티 라진왕이 칭찬(稱讚)하야 왕축왕은 복(福)이만어
 셔져려 홀영즈(命子)들 두었스니 엇지 반갑지 아니하리 오하며 또 물러갈을 디 전일공
 산에서 쳐하셔든 모양은 엇다가 두고 축왕이 되엿노뇨 홀티 축왕이 왈 소왕도 전성립상
 (天上)의 티을 진군(太乙眞君)으로 진상(進上)홀런도 두지(仁天桃二個)를 먹엇더
 니 그 죄로 스슴에 허물을 써워 인간의 티치시미 홀슈업셔 만슈지군(萬壽之君)이 되엿
 더니 티왕을 피시고 강적 호왕과 여적 송문경을 죽인 그 공으로 상제게서 선관을 보니셔

후한 허물을 벗겨 주시고 추왕이 포학한 미소왕으로 하여금 추왕을 멸하고 인심을 구순
 (俱順) 제하 미백성이 인하여 만접하고 왕이 된 말을 낫々 처한 뒤 진왕이 말을 들으니
 그녀석(女息)의 명감(明鑑)을 단복하고 추왕을 다리고 언저게 드러가 추왕은 복디 청
 죄(伏地請罪)하고 진왕은 듯든 말티로 낫々 치슈달흔 뒤 언저드르시고 글々 사디 추왕
 은련상지인(天上之人)이 오그 아달이 영순(伶順)하고 디덕군즈(大德君子)의 괴상이
 라하니 진왕은 그 혼스(婚事)를 완정하 라하시니 진왕도 질겨하고 추왕은 황공(惶慙)
 하야련은(天恩)을 무슈히 청복하 라레 관을 불너 불일(不日)로 퇴일(擇日)하야 성례
 를 갖추어 진궁에 드러가니 동방 화촉(洞房火燭)에 질겨하 미비할 데 업더라 일々은 진
 왕이 혼심을 어드니 하늘노셔 셴너 나려와 일계를 쳐저다 리고련상으로 올나 가거늘 놀
 나쳐다르니 침상일몽(枕上一夢)이라 추왕을 디하여 그몽스(夢事)를 의문하미 둘이
 삼이 낫흔 자라 괴이 하야 내전(內殿)의 드러가 들의 삼말을 혼디 공주(公主)도 삼을 어
 든 말슴을 하느디 그와 낫흔 자라 삼인(三人)의 삼이 낫흐니 필경(必竟)코고 하도다
 하얏더니 하로는 려상(天上)으로 셴악(仙樂)소리나더니 무지키 서며 여러 셴관 셴너
 (仙官仙女)나려와 서상제에 명을 전하 고진왕(晉王)과 공주(公主)와 추왕(蜀王)과 월
 계(月桂)와 낭즈(郎子)를 다 되시고 무지키를 타고 운무(雲霧)에 서이여 려상으로 올나
 가니 세상이름이 그거동을 보고 칭찬(稱讚)아니 리 업고 이런 일은 천만고의 드문 일이
 라 하더라

학 진 전 종

大正六年十月十二日 印刷

大正六年十月十五日 發行

(학 진 전)

(定價金貳拾錢)

京城府 淸雲洞 百番地

著者 兼 發行 人 金 翼 洙

京城府 嘉會洞 二百十六番地

印刷者 金 弘 奎

京城府 壽松洞 四十四番地

印刷所 普 成 社

京城府 鍾路通 二丁目 九八番地

發行所 普 信 書 館



不許複製

各種新舊書籍을特別割引으로多少를勿
論하시고買入하시라거든

京城府鍾路通二丁目九十八番地

業
普信書館

新舊書籍都散賣
教科書指定發賣

으로만多少不計하고注文하심

을大望합니다

主務 金文煥